



스위스 스파 호텔.

테마 결합한 호텔 상품 인기

온전히 쉬어가며 건강을 회복하고 활기를 되찾아 보세요

스파 전문가가 선보이는 자연주의 테라피

알프스 뷰를 한 아름 선사하는 노천탕

다양한 체험 위해 고안된 실내외 풀장

영양 밸런스를 고려한 맛있는 메뉴까지

스위스에서 온전히 쉬어보세요

웰니스 & 스파 호텔은 휴식 그 이상을 선사한다. 햇살 가득한 테라스와 호텔 근처 트레일을 따라 다양한 액티비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스위스 럭셔리 브랜드 제품으로 뷰티 및 안티 에이징 트리트먼트를 받으며, 삶의 속도를 잠시 늦추는 몸과 마음의 훈련을 하고, 치유의 효과가 있는 물로 채운 풀장에 몸을 담그고 대단한 파노라마를 감상하며, 신선하고 건강한 재료로 정성껏 요리한 음식을 먹다 보면 새로운 나를 만나는 신묘한 순간을 맞게 된다.

스위스는 이렇게 스파 및 활력 체험을 할 수 있는 호텔을 “스파(Spa) & 바이탈리티(Vitality: 활력) 호텔”이라는 레이블로 묶고, 그 자격을 관리해 인증하고 있다. 이 카테고리에 속하는 호텔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휴양(Relaxing):

눈에 띄는 스파 메뉴와 다양한 범주의 서비스를 갖추고, 투숙객이 온전히 쉬며 휴양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리juvenating(Rejuvenating):

농담 삼아 ‘회춘’이라 번역해도 좋을 만한데, 건강해지고, 또 건강을 유지하자는 목적이다. 호텔은 조화로운 영양 프로그램을 선사하고, 개별 트리트먼트를 운영하며, 신선하고 맑은 공기 속에서 운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춰야 한다.

활기(Invigorating):

넓은 범주의 스포츠 액티비티와 퍼스널 케어로 투숙객의 몸과 마음에 활기를 불어 넣어줘야 한다.

“스파 & 바이탈리티 호텔”로 인증받기 위해 각 호텔은 이에 필요한 자격을 갖춰야 하는데, 그중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까다롭게 적용된다.

1. 자격을 갖춘 스파 및 웰니스 직원 상주
2. 최소 네 가지 다른 트리트먼트 프로그램 운영
3. 분리된 룸에서 트리트먼트 제공
4. 영양 밸런스를 고려한 식음료 셀렉션 제공

이런 호텔 중, 겨울 패키지를 판매하는 호텔 몇 곳을 소개한다.

1. 세미나 운트 웰니스호텔 슈토스(Seminar- und Wellnesshotel Stoos)****, 슈토스(Stoos)



루체른(Luzern)에서 멀지 않은 알프스 마을, 슈토스는 루체른 호수 위 해발고도 1,300m 위에 있는 차랑 금지 마을로, 스키장 한복판에 이 4성급 호텔이 있다. 1977년부터 대를 이어 운영하는 호텔로, 로맨틱한 객실에서 바라보는 뷰가 대단하다. 호텔 내의 두 개 레스토랑에서는 슈비츠 지역 전통 요리를 맛볼 수 있는데, 아름다운 파노라마도 선사한다. 스키와 썰매뿐만 아니라, 개 썰매 투어도 체험해 볼 수 있다. 현대적이면서도 따뜻한 분위기의 호텔로, 세심하게 고른 가구와 스타일리시하게 꾸민 목조 인테리어가 새로운 디자이너 룸을 빛내준다. 스파 시설도 훌륭한데, 1,100m²의 공간에 사우나와 실내 수영장, 노천온천을 갖췄다. 올리베다(Oliveda) 올리브 트리 테라피를 선보이는 스위스 유일의 웰니스 호텔이다. 스파 시설에서 바라보는 알프스 뷰가 대단하다. 요가 세미나, 오리엔탈 커플 트리트먼트도 운영한다.

2. 호텔 발덱(Hotel Waldegg)****, 엔겔베르크(Engelberg)

뷰 하나만으로도 깊은 숨을 몰아쉬게 만든다. 발덱은 엔겔베르크 마을 지붕이 내려다 보이는 남향에 자리해 모든 객실에서 티틀리스(Titlis)와 주변 알프스 뷰를 선사한다. 새롭게 단장한 수퍼리어 룸이 아름답고, 파노라마 레스토랑에서는 로컬 특산품을 사용한 메뉴를 선보인다. 웰빙 풀장을 갖춘 스파 시설도 돋보인다. 알프스 정통 스타일의 34도 온수 풀장은 아늑하다. 대단한 알프스 파노라마가 한가득이다. 마사지 제트, 하이드로 마사지, 월풀, 핀란드식 사우나, 아로마 바스, 증기탕, 크나이프 족욕, 어드벤처 샤워, 웰니스 바 등 다양한 시설을 갖췄다. 마사지 및 뷰티 트리트먼트도 훌륭하다. 신선한 요리와 로컬 재배 허브티, 발코니가 있는 온실이 돋보인다.

3. 호텔 뢰슬리 고메 & 스파(Hotel Rössli Gourmet & Spa)****, 백기스(Weggis)

루체른(Luzern) 호숫가 산책로에 마주한 아름다운 위치는 호수와 알프스의 풍경을 한 아름 선사한다. 4성급 호텔의 모든 객실은 발코니와 목재 바닥을 갖췄다. 럭셔리 “엘리트” 브랜드 매트리스로 포근함을 더했다. 전통 호텔에 속하는 뢰슬리는 노천 해수탕을 갖춘 스타일리쉬한 스파로도 유명하다. 루체른 호수의 풍경을 담백 담은 우아한 스파는 현대적인 900m² 웰니스 공간에 핀란드식 사우나, 샤워, 온탕을 갖췄다. 야외 공간에는 히말라야 소금 벽이 있는 햇살 가득한 룸이 있다. 피트니스룸에서도 파노라마가 펼쳐진다. 필라테스 레슨과 영양 상담도 받을 수 있으며, 전문 테라피스트에게 뷰티 및 마사지 트리트먼트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신선한 재료를 사용해 정성껏 내어 놓는 고급 요리와 전문가의 손길을 거친 와인 리스트가 빛을 발한다.

4. 호텔 드 프랑스 바이 테르말호텔스(Hotel de France by Thermalhotels)****, 로이커바트(Leukerbad)

스위스에서 가장 유명한 온천 마을 중 하나인 로이커바트에 있는 호텔로, 역사적인 마을 광장에 있다. 135개의 객실을 갖췄는데, 유럽에서 가장 크고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온천탕, 발리저 알펜테름(Walliser Alpentherme)과 바로 연결되어 있다. 총 12,500m²나 되는 스파 시설은 해발고도 1,411m에 있는데, 로만-아이리쉬 바스, 발레 사우나 빌리지, 온천탕 외에도 아유르베다 트리트먼트와 클라랑스 뷰티 인스티튜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5. 리조트 라 지나벨(Resort La Ginabelle)****s, 체르마트(Zermatt)

고요한 자연 속에 자리한 수퍼리어 4성급 리조트로, 산악 철도 및 스키장과 무척 가깝다. 스타일리쉬한 객실과 스위트룸, 아파트먼트까지 갖췄다. 럭셔리한 스파 시설에는 다양한 풀장이 있는데, 34°의 온수 속에서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어드벤처 풀, 파트너 스파, 어린이 스파를 비롯해 실내 풀장과 노천온천탕도 있다. 허브 바스, 핀란드식 사우나, 적외선 사우나, 어드벤처 샤워, 물침대 등 다양한 코너를 마련해 두었다. 아로마 뷰티 및 트리트먼트 패키지도 인기다.



6. 아야 취리히. 다스 시티-리조트(aja Zürich. Das City-Resort), 취리히(Zurich)

취리히 중앙역에서 무척 가까운 알트슈테텐(Altstetten) 역에 있는 호텔로, 취리히의 도시 풍경이 한 아름 들어오는 319 개의 객실을 갖췄다. 웰니스 시설과 코워킹 공간 외에도 호텔 내의 오렐 뢰슬리(Orell Füssli) 서점과 델리 레스토랑은 시민들에게도 인기다. 호텔 안에 있는 레스토랑에서는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풍류를 즐길 수 있다. 특히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스파 시설, 니베아 하우스(NIVEA Haus)가 있는데, 스위스에서 시범적인 스파다. 루프탑 테라스를 갖춘 대형 스파 시설과 요가 클래스, 24 시간 운영되는 피트니스도 운영한다. 노천에 마련된 핀란드식 사우나에서는 위틀리베르크(Uetliberg) 봉우리와 알프스 풍경이 펼쳐진다.

7. 체르보 마운틴 리조트 & 스파(CERVO Mountain Resort & Spa)****, 체르마트(Zermatt)

웅장한 마테호른(Matterhorn) 봉우리가 정점을 찍는 환상적인 뷰를 펼쳐내는 체르보는 평온한 숲과 생기 넘치는 마을 사이에 자리해 있다. 아홉 개의 럭셔리 스타일 루지는 걸거나 리프트로 찾아갈 수 있다. 디자인 측면에 있어 혁신적인 알프스 살레 콤플렉스는 스키/헌팅 루지와 현대적인 감각을 잘 살려냈다. 리조트의 마운틴 아쉬람 스파(Mountain Ashram Spa)는 이미 소문이 자자하다. 근교에서 채취한 허브를 사용하는 트리트먼트와 감탄스러운 노딕 사우나, 목조 오두막에서의 부탄식 핫 스톤 바스, 마테호른 뷰가 펼쳐지는 42°C 온수의 노천탕은 스위스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천연 제품을 사용한 뷰티 트리트먼트를 포함해 필라테스 및 요가, 명상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8. 더 돌더 그랜드(The Dolder Grand)****s, 취리히(Zurich)

유명한 런던 건축가 포스터 앤 파트너스(Foster and Partners)가 돌더를 대단한 럭셔리 호텔로 변모시켰다. 지금은 취리히의 도시 풍경과 알프스, 호수의 파노라마를 펼쳐내는 명소로 사랑받고 있다. 특히 4,000m² 나 되는 공간에 마련된 스파 시설은 동서양의 감각을 잘 녹여냈다. 18 개의 트리트먼트 룸과 2 개의 스파 스위트가 있다. 취리히 주변의 시골 풍경이 담백 들어오는 대형 풀장과 실내외 월풀, 사우나에서 특별한 스파 체험을 즐길 수 있다.

9. 르 미라보 호텔 & 스파(Le Mirabeau Hotel & Spa)****s, 체르마트(Zermatt)

고요한 풍경 속에 자리한 호텔 및 레지던스로 기차역에서 200m 거리에 있다. 무료 픽업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족이 운영하는 호텔답게, 전통과 디자인, 아늑한 분위기에 집중한다. 호텔에서는 마테호른의 뷰가 담백 들어온다. 알프스에서 공수한 재료를 사용해 단장한 객실이 정겹다. “알파인 하이더웨이 스파(Alpine Hideaway Spa)”에서는 허브 바스와 발레 스타일 사우나를 체험할 수 있다. 알프스에서 채취한 허브를 사용한 뷰티 및 바디 트리트먼트, 스톤 마사지, 커플 트리트먼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자료제공: 스위스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